退溪詩書의 特異性**

徐　首　生*

● 目　次 ●

Ⅰ. 序　言
Ⅱ. 退溪의 詩觀과 詩的 美感
Ⅲ. 退溪書의 端重 濃墨性
Ⅳ. 結　言

Ⅰ. 序　言

퇴계는 동방의 儒宗으로 숭앙되어 그의 학덕이 조선조 儒學史上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멀리 현해탄 건너 일본학계에까지 크게 숭상되었던 東方大賢임은 말할 것도 없다.

퇴계[1]는 우주나 인심의 본체를 理氣二元으로 생각하되, 소위 「理氣互發說과 사단은 理發氣隨之요 칠정은 氣發理乘之」란 것을 주창한 理學의 대가였다. 그는 주자학을 수용하되, 주자학의 未盡處를 천명하고, 한층 발달시켜 發의 문제를 궁구하고, 창의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새로 그 理學을 대성한 其人이니 주자 이후 唯一人이다.[2]

---

*　경북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36호(1982) 게재논문

1) 阿部吉雄, 『日本朱子學과 朝鮮』

2) 山崎闇齋, 『文會筆錄』, 권20
「朱子書節要는 평생정력이 여기에 다하였으며, 退溪文集 49卷을 내가 閱讀해 보니 참으로 조선 第一人이라.」
稻葉默齋, 『默齋全書拾遺 乙卯冬至漫書』

율곡이 「선생은 儒宗으로서 평생을 義理學에 沈潛하고, 言論風旨가 卓犖한 점은 비록 古來 名儒라도 그보다 나을 수가 없다」[3]고 극찬하였을 뿐 아니라, 金農岩도 「퇴계의 論學文字가 동방에도 없을 뿐 아니라, 중국에도 많지 않았다. 진서산 같은 이도 주자 이래의 大儒로 저술이 많았지마는 논학문자가 한 둘에 불과하고, 퇴계의 精切評懇한 大文字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것이야 불문 가지라」[4]고 논평하였다. 퇴계의 深達學立이 宇內外에 卓然特立한 것을 칭송하였다. 조선조 문장 4대가의 한 사람인 李澤堂도 「조선조 明宣間에 鴻儒碩德이 彬出하였으나 퇴계가 冕冠이었다. 그의 學은 道術을 밝히고 이단을 배척하여 덕행함으로써 儒風이 크게 진작되어 국가에 奕功을 끼쳤다」[5]고 하였으니 퇴계학의 卓爾性을 窺知할 수 있다.

퇴계는 理學의 大賢으로서 因文入道한 大哲人임에도 인간서정을 토로한 시문학 또한 타의 추종을 許하지 않는 椽大筆로 藝苑의 거벽일 뿐만 아니라, 서예 또한 남다른 누각을 이룩하였다.

퇴계의 문집엔 無慮 2000수에 달하는 詩[6]와 하고 많은 說理文章이 전해져 吾人의 심금을 울린다. 더욱이 인문입도한 퇴계인지라, 이 방면에 宿功이 없을 수 없어 일찍이 能聲을 博하여 宇內를 聳動하였다.

특히 外延(extention)과 內包(intention)에 의하여 창조된 서정의 律語와 端雅濃墨性[7]이 서린 서예미의 특성을 척결함으로써 퇴계시서의

「주자는 공자 이래의 一人이라. 주자학을 바르게 信從한 이는 퇴계로 주자이래의 一人이다.」
楠本碩水, 『碩水先生餘稿』
「퇴계를 尊信함이 더욱 돈독하여 주자 이후 一人으로 삼았다.」

3) 『퇴계전서』, 4 , 권 1, 『언행록』, 「遺事」, 李珥撰.
4) 『農岩集』, 권32, 「雜識」
5) 『澤堂別集』, 권15, 「雜著」, 「示兒代筆」.
6) 退溪文詩 가운데, 詩 2000여수가 실려 있다.
內集에 1000여수, 別集에 360여수, 外集에 200여수, 續集에 340여수가 전한다.
7) Allen Tate, 『현대문학의 영역』, 99쪽.
Theory of Literature(Welleck and Warren), 175쪽.

본질을 천명코자 한다.

Ⅱ. 退溪의 詩觀과 詩的 美感

퇴계는 俗儒처럼 단순히 經文一致 문예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무리 좋은 道라도 문장의 표현력 없이는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고 갈파하였다. 그래서 「문장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한 Buffon이 아니라도 퇴계는 「시는 사람이요, 사람은 시다」라고 한 詩觀을 갖고 서정을 승화시켰다.

퇴계는 확고부동한 이기철학관 속에 사물을 靜觀하고 수도극기하는 도학군자였다. 그러므로, 矜豪放蕩하고 褻慢戱狎하며 淫哇不貞한 시를 배격하고[8] 溫敦·純情한 시관으로 치달아 遇物에 基本情情을 토로하였다. 온돈·순정한 시관으로써 퇴계의 言志[9]가 살쪄갔다.

퇴계는 早年부터 終年까지 사이에 중국문단의 명시인들의 시의 영향을 받았다. 곧 도연명·두보·한유·유종지·백락천·유우석·구양수·소동파·소옹·주희 등의 시를 읽고, 次韻·用韻·和韻했다는 것은 문

좋은 시란 것은 내포와 외연(擴張)의 最遠의 양극에서 모든 의미를 통한다.(Allen Tate)

시를 構造하는 두 개의 주요한 원리는 격조와 은유다. (Welleck and Warren)

『靑莊館全書』, 권68, 「寒竹堂涉筆上」, 「權松溪」, "嘗言于退溪曰 「先生少止澹薄月 濃墨草書 則先生之道德益高」風月者 東俗所謂詩也"

8) 拙稿, 「퇴계문학의 연구」, 『퇴계학연구』 1(1973. 12. 1), 183쪽.

9) 『增補퇴계전서』 5, 「陶山十二曲跋」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老人之作此何爲也哉 我東方歌曲 大抵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戱狎 尤罪君子所宜尙惟近世有李鼈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 此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집 도처에 보인다.

그 중에도 陶·杜·歐·蘇·朱의 시를 가장 사랑하였다. 초년엔 陶·杜詩를 중년엔 蘇詩를 만년엔 朱·邵詩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가장 陶杜朱詩를 즐겨 읽고 인간서정을 승화시켰다. 퇴계의 제자 문봉 정유일은 「선생이 시를 좋아하되 도연명과 두보의 시를 즐겨 보았으나, 만년엔 주자의 시를 더욱 즐겨 읽었다」[10]고 하였으니 저간의 信息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퇴계가 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마음을 바로 잡는 데 있다. 옛날부터 어찌 시서를 공부하지 않을 수 있는 理學이 있겠는가. 시경을 읽는 것이 心學에 切害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인 듯한데 그것을 읽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11]이라 생각하면서 鄭子中의 和閒居二十詠에 이르러서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吟詩[12]

詩不誤人人自誤　興來情適已難禁
風雲動處有神助　菫血消時絶俗音
栗里賦成眞樂志　草堂改罷自長吟
緣他未著明明眼　不是吾緘耿耿心

시가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시를 그르친다. 흥이 일고 감정이 나면, 이미 시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람과

10) 『퇴계집』, 권1, 「東岩誌」 / 『退溪集』, 卷3, 「求志」(和子中閒居 二十詠).
『퇴계집』, 권3, 「陶山誌」 / 『退溪集續』, 卷1, 「東岩誌」
『퇴계전서』, 3, 「三月病中誌」, 22쪽
시를 내용과 형식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를 정의하는 경우, 곧 詩誌歌永言(書經堯傳)이라 하였다. 시를 뜻(志)으로 보니까 시의 내용 즉 포에지를 정의한 것이다.

11) 『퇴계전서』, 4, 『言行通錄』, 권 1, 「言行通述」, 20쪽.

12) 同上, 2, 권36, 「答寺宏仲」, 232쪽.
"數日前書及詩……韓文公以不學詩書爲腹空 假使公專意此學 自古安有不學詩書底理學耶……願公思之前日面勸讀詩 今問讀何書 是萬意以讀書爲不切於心學 而不欲讀之 此大誤也 故索言耳"

구름이 일고 움직이는 곳엔 神이 도와 시를 짓게 하고, 묵은 피가 식었을 때 속된 노래 끝난다. 栗里의 도연명이 시지어 眞意를 즐기고, 草堂의 두보는 시를 추고해 놓고, 길게 읊었다. 이처럼 그는 遇物値興하여 미의 운율적 창조가 이룩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詩不誤人人自誤하니 興來情適已難禁」이라 부르짖으며 시 자체의 純情無垢性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에겐 시가 가장 緊切한 것은 아니다」[13] 라고 말하였으니 사람들이 시를 배우다가 시에 정신이 빠져 본심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래서 동방 한문학의 達摩初祖인 崔孤雲에 대하여 「文華是尙」이라 평하였고, 金佑畢齋에 대하여는 「학문하는 이가 아니며 종신 사업이 다만 詞華에 있을 뿐이니 그 문집을 보면 알 수 있다」[14]고 하였다. 공자가 「詩三百 一言而蔽之曰 思無邪」라고 시를 정의하였다. 곧 「시 300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요사함이 없다」는 뜻이니 시를 기능효용에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모랄리스트로서의 孔夫子의 詩觀은 교훈주의적 공리주의적 입장에 서 있었다. 시가 정감을 흥분시켜 이것을 해칠까 저어하여 시인을 공화국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주장한 플라톤(Platon)과 공자는 다 같이 시를 기능효용면에서 보면서 전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고, 후자는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므로 모랄리스트로서의 퇴계도 역시 시를 기능효용면에서 보았던 것 같다. 그러므로, 고상한 성정을 상상에 의하여 음악적 형식으로 암시했다. 그러나, 玩物喪志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퇴계는 명종 13년(1558) 58세 때, 魚灌圃詩集跋文에서 사람과 시는 정비례가 되며, 그 시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서려 있다고 보았다. 대저 詩工이나 사람을 취할 수 없고, 人憂나 시를 취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에 전하지 못할 것이며, 그 詩工에 사람의 인격이 어려 모범이 될 만한 것은 세상에 전할 수 있다. 사람과 시를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한 이는 그 사람의 병통이다. 그러나 그 사람과 그 시를 세상에 전할 수

13) 『퇴계전서』, 1, 권3, 「詩」, 108쪽.
14) 『퇴계전서』, 4, 권5, 『언행록』, 「類編」, 103쪽.
"又曰詩於學者最非緊切然遇景値興 不可無詩矣"

있으되 전하지 않는 것은 후세 士林의 책임으로 간주하였다.[15] 그러므로 훌륭한 시공 속에 훌륭한 그 사람의 인품이 엉겨 있는 시라야 후세에 전할 수 있다는 시관이었다. 프랑스의 문학자 뷰폰(Buffon)의 경구에 「문체는 사람이다」라고 한 말은 어떠한 문체도 그 작자의 인격의 표명이란 뜻이다. 그러나, 한트(Hunt)는 「문체는 사람이다」란 경구를 역으로 「사람은 문체다」(The man is the style)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포스넷(Posnett)은 인격이 「문학개발의 원리」(The principle of Literary Grouth)라고 한 것도 인격이 얼마나 문학에 있어서 중요시되는가를 나타낸 말이다. 사람과 문체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에 문체를 한 작품으로 본다면, 「작품은 사람이요, 사람은 작품이다」란 새 명제를 표현해도 진리는 같다.

徐師曾의 文體明辨에도 「문장이 세상에 중시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이 아닐진대 비록 문장이 아름다워서 전해져도 도리어 병통이 된다.」고 말하였다. 곧 인격이 높지 않으면 어떤 기교를 弄해도 그 문장은 세상에 중시되지 않는다고 한 말이겠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퇴계의 시관도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盖有詩工而於人無取者 有人優而於詩未至者 若是者 果可以傳世乎 讀其詩而可喜 求其人而可慕 若是者 果不足以傳世乎」[16]

인격과 詩工이 갖추어져야만 그 시가 세상에 중시된다. 어떤 시공도 인격이 높지 않고서야 세상에 존중되기 못한다. 사람과 시와는 不可離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퇴계의 시관도 「시는 사람이요 사람도 시다」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훌륭한 시공 속에 고매한 인격이 엉긴 詩라야 세상에 존중되고 후세에 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퇴계는 理學者이긴 하나, 시짓기를 좋아하고 평생토록 用功함이 많았다. 그의 시가 枯淡하기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用力이 頗深하였기에 처음 슬쩍 읽어보면, 냉담한 듯하나, 오래 읽어보

15) 『퇴계전서』, 4, 권5, 『언행록』, 「類編」, 98쪽.
16) 『퇴계전서』, 2, 권43, 「跋 魚灌圃詩集跋」, 379쪽.

면, 그 속에 의미가 있다.[17] 그의 시는 淸嚴簡淡하였다. 이것은 그의 인품과 닮았다. 소시엔 두보의 시를 익히고 만년엔 주자의 시를 좋아했다. 그의 격조가 一手에서 나온 것 같았고, 필법 또한 端重하였다.[18] 偶吟一絶一句一字라도 반드시 精思更完하여 쉽게 남에게 보이지 않는[19] 엄정한 作詩태도를 가졌다.

千鍛萬鍊[20]과 調律을 통해서 詩作을 이룩하였다. 외적 雕琢으로 내적 의미를 표현코자 하였다. 그는 청엄·고담·순정·경건·전실한 시를 쓰되 華彩와 淫哇를 배격하였다. 확고부동한 理學的 철학관을 세우고 그 理氣머리 속에서 사물을 응시하였을 뿐 아니라, 高尙 溫粹 簡淡 端重[21]한 성품에서 이런 詩格이 이룩되었다.

1. 內在的 美感

一. 隱喩的 歷史意識

퇴계는 직유(Simile)보다도 用事論[22]을 끌어 은유(Metaphor)로써 주체적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절의를 숭상하면서 시적 이미지를 풍겼다.

東國史를 읽다가 金應霖의 韻을 빌려 쓴 시를 보면, 은유적 미감 속에 주체적 역사의식이 엉겼다.

蠻觸乾坤計未良	좋은 꾀도 없었네라 적이 쳐와도,
孰爲猛獸孰群羊	그 뉘라 이리떼며 양떼이던가.
爭彊爛沸雖從漢	한대부터 이 강산이 어지러웠다,

17) 『퇴계전서』, 2, 권43, 「跋 魚灌圃詩集跋」, 379쪽.
18) 『퇴계전서』, 4, 권5, 『언행록』, 「類編」, 103쪽.
19) 『퇴계전서』, 4, 권5, 『언행록』, 「類編」, 103쪽.
"爲詩淸嚴簡談 類其爲人 소嘗學杜詩 晩喜每庵詩 往往調格如出一手筆法亦端重 人爭來求亦 不彊辭也"
20) 『퇴계전서』, 4, 권5, 『언행록』, 「類編」, 103쪽.
21) 『이퇴계書抄』, 권9, 「與鄭子精書」, (『日本刻版退溪全集下』), 186쪽.
22) 『퇴계전서』, 4, 권1, 『언행록』, 「實記」, 9~22쪽.

開國神明實自唐　　단군할범 나라연 지 실로 唐堯때.
但有名存離復合　　헤어졌다 또 합치니 이름남아라,
不隨形滅臭兼香　　형상마저 꺼지 않는 냄새와 향기.
秋風白日書窓下　　가을바람 햇볕쬐는 창가에 앉아,
獨對遺編永憤傷[23]　옛 사기를 읽으니까 가슴 아파라.

冶隱 吉再의 旌閭를 지나면서
「先生晦其中　表閭朝命頒　大義不可撓　豈日辭塵寰　千載釣臺風　再使激東韓」[24]

라고 읊었다. 冶隱의 淸風高節을 「千載釣臺風」에 부쳤다. 용사적 은유로써 시적 이미지를 살려 百世淸風을 기렸다. 그러나, 부귀는 얻기 쉬워도 名節은 보전키 어렵다.[25] 야은은 명절을 능히 붙들었으므로 그를 찬양했다. 「千載釣臺風　再使激東韓」[26](엄광의 맑은 바람 천추에 남아, 다시금 이 나라에 불어 닥쳤네)은 이 시의 눈이다. 그리고, 퇴계 41세(1541)때, 강원도 청평산을 지나치다가 청평거사 이자현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바 있어 七律을 짓고 序를 썼다.

峽束江盤機道傾　　사닥다리 구불구불 강 따라 벼랑,
忽逢雲外出溪淸　　홀연히 흘러라 구름 밖 시내.
至今人說盧山社　　이제껏 백련사를 일렀건마는,
是處爲君谷口耕　　이곳이야 밭갈던 임의 곡굴레.
白月滿空餘素抱　　저 창공 달빛 속에 임의 넋 어렸고,
晴嵐無跡遺浮榮　　이 맑은 산기운에 영화 버렸네.
東韓隱逸誰修傳　　우리의 은일전을 누가 닦으리,
莫指微疵屛白珩[27]　가느다란 티꼽어 구슬 버릴까.

---

23) 拙著, 『고려조 한문학연구』, 60~62쪽.
24) 『퇴계전서』, 1, 권1, 「시」, 50쪽.
25) 『퇴계전서』, 1, 권1, 「시」, 47쪽.
26) 『퇴계전서』, 5, 「이자수어권」, 435쪽.
27) 『퇴계전서』, 1, 권1, 「시」, 47쪽.

晋의 慧遠의 白蓮社 고사와 漢의 鄭子眞이 谷口에서 밭갈이 한 故實인 「盧山社와 谷口耕」을 끌어 希夷子를 찬송하였다. 盧山社 谷口社가 지니는 은유적 함축과 역사적 고실의 이미지가 흐른다. 동시에 대구를 이루었다.

頷聯의 대구 속에 希夷子가 섰다. 백월 만공과 청람 무적이 주는 언어의 諧調性과 달빛 산기운이 갖는 이미지 속에 희이자로 이어졌다. 首·尾聯은 散句로 끝났으나 頸聯과 頷聯은 대구로서 조화를 이루었다. 언어의 연금술과 은유로서 희이자의 절개높은 은일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청평에서 은거한 高士 李資玄에 대하여 동국통감에 貪鄙吝嗇하다고 비방하였으나, 그 史論이 옳지 못함을 반박했다.[28] 이자현이 임금의 초빙을 사양하는 글월 중에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면, 음악을 아뢰던 근심이 없을 것이요, 고기의 기쁨을 살펴서 강호의 기쁨을 알게 해 주옵소서[29]」란 글귀가 있는데 속인이 그의 흉중을 어이 아리오, 세상공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산림에 묻혀 수도하며 살아가는 희이자의 심경을 알아주고 정당한 史論을 폈다. 그의 고매한 성품을 기리면서 七律로써 마음의 창을 열었다. 선조 때 이수광도 퇴계의 명시인 過淸平山有感의 頷聯과 結聯만 들고 사관이 이자현을 비난하되 탐색했다고 극언한 것은 吹毛를 면치 못했으며 퇴계의 시가 正論이라고 평하였다.[30] 퇴계는 시적 미감을 끌어 고사 희이자의 고결성을 기리는 정론을 폈다.

---

28) 『퇴계전서』, 1, 권1, 「시」, 54쪽.
29) 『퇴계전서』, 1, 권1, 「시」, 52~54쪽.
30) 『퇴계전서』, 1, 권1, 「시」, 53쪽.
南華經에 바다새 鷗鷺가 놋다리에 나타나자 老侯가 大韶樂을 아뢰며 한소로 반찬을 삼았더니 鷗鷺는 슬퍼한 지 삼일 만에 죽었다. 이는 새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莊子가 惠子와 함께 濠梁上에 놀 제, 장자는 「假魚가 조용히 나와 노니 이것이 고기의 즐거움이야」라고 하자, 혜자는 「그대가 고기가 아닐진대 어찌 고기의 즐거움을 아리오」라고 하니, 장자는 「그렇다면 그대도 내가 아닌데 어찌 내가 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리오」라고 말하였다.

二. 自然眞樂에서의 憧憬과 淸標心

퇴계는 幼時부터 뜻이 官路에 있지 않고, 자연속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유로이 閑靜하면서 道닦고 立言垂後하려고 하였다. 그는 일시 仕官하긴 하였으나, 이어 南歸하여 故里陶山泉石에 안겼다. 世路가 험궂고 벼슬이 높아지자 병약한 몸으로 그 책임을 감내키 어려운 것도 한 원인이겠으나 그것보다도 천성이 전원을 동경하고 대자연미를 끌어들여 그 속에서 학문을 성취코자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생각된다.[31]

그는 천성이 전원을 그리워했고, 그 산수의 바탕을 근본으로 삼되, 靜을 사랑하고 시끄러움을 사랑하지 않았다. 한정한 정원에서 자연의 미를 사랑하면서 학문하는 것이 이상이었던 같다.

만년에 守靜이란 시에서 「我性愛山隱 塵紛久消歇 一朝來嘗世 已覺神外滑[32]라고 읊기도 하였으니 도연명의 「少無適俗韻 性本愛邱山」[33]이란 말과 통한다.

또 和陶集飮酒二十首에(47세 때) 「我本工野質 愛靜不愛喧 愛喧固不可 愛靜亦一偏 君看大道人 朝市尊雲山」[34]이라고 하여 靜的 세계에서 진리를 추구코자 했다.

그는 문과에 오른 3년 뒤 36세 때(중종 丙申 1536) 서울에 있으면서 자유스런 田園樂을 그리워했다. 感春(丙申)詩[35]에 그 동경이 잘 나타나 있다.

淸晨無一事　　싱그런 새벽에 할 일도 없이,
披衣坐西軒　　의관차려 서헌에 앉았으니는.
家僮掃庭戶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 뜨락을 쓸고,
寂廖還掩門　　문문마다 닫혀서 고요도 할 제.

31) 『芝峰說』, 권13, 「文章部」 「六東詩」.
32) 『퇴계전서』, 1, 권1, 「시 和陶集飮酒 二十首」, 71쪽.
33) 『퇴계전서』, 1, 권5, 「시 守靜」, 146쪽.
34) 『도연명집』, 권2, 「歸園田居」, 6수 중 其一 첫 聯.
35) 『퇴계전서』, 1, 권1, 「시 和陶集飮酒 이십수」 중 其五, 71쪽.

細草生幽砌　그윽한 섬돌엔 가는 풀 돋고,
佳樹散芳園　꽃동산에 흘어졌네 푸른 나무들.
杏花雨前稀　봄비 맞고 드문드문 피는 살구꽃,
桃花袍來繁　밤 사이에 웃어라 활짝 복숭아.
紅櫻香雪飄　향설이 나부끼듯 붉은 앵두꽃,
縞李銀海翻　은빛 바다 번쩍이듯 하얀 오얏꽃.
好鳥如自矜　새들도 자랑스레 봄을 맞아서,
間關哢朝暄　아침 볕에 한가로이 지저귀누나.
時光忽不留　광음은 홀연히 아주 가버려,
幽懷恨雞言　섭섭하기 그지없다. 그윽한 회포.
三年哀洛春　삼년 동안 서울에서 봄을 보낼 제,
局侶駒在轅　망아지가 수레채에 매인 듯하오.
悠悠竟何益　부질없이 보냈거니 무슨 이익고,
日夕愧國恩　밤낮으로 부끄럽다. 나라 그 은혜.
我家淸洛上　해맑은 낙강 위 그 곳 우리집,
熙熙樂閒村　평화롭고 즐거운 남녘 내 고장.
隣里事東作　이웃동네 농부들이 봄갈이 한창,
鷄犬護籬垣　닭과 개가 지키누나 저 울타리를 .
圖書靜几席　그림도 책권도 방안 고요해,
烟霞映川原　연기놀이 서렸구나 냇가의 언덕.
溪中魚與鳥　시내 속엔 평화롭네 새와 고기들,
松下鶴鳥猿　솔 아래엔 한가롭네 학과 잔나비.
樂哉山中人　즐거운저 저 메속 저 사람이여,
言歸謀酒尊　그 고장에 돌아가 술을 빚어라.

농부들은 밭갈이할 제 닭과 개가 울타리를 지키며, 냇가엔 고기와 새, 솔 아래엔 학과 잔나비가 한가롭고, 놀이 자욱한 도산의 閑靜을 그리워했다. 烟霞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36] 萬卷生涯로 爲己之學을 이루고자 했다. 타고난 泉石膏肓[37]속에서 생을 찾았다. 동적 세계에

36)『퇴계전서』, 1, 권1,「시 感春」, 47쪽.
퇴계 36세 때 지은 오언고시로 都會의 仕宦에서 故里 田園을 憧憬한 명작이다.

서 정적 세계로 달렸다. 그의 자연은 객관적 자연보다 주관 자연으로 끌어들였다. 그의 한정자연이란 遊樂에 생을 보내는 閑雅한 귀인의 경지도 아니고, 인생의 고뇌를 잊고자 하는 은사의 경지도 아니요, 仙都나 隱棲地의 그것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인간 속에 있으면서 인간 속 도산에서 나를 찾았다. 凡百의 詠物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간에서 벗어난 자연물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자연물이었다. 그 중에도 주된 자연물은 梅竹松菊이었다. 도산잡영에 「蒙泉의 산기슭을 깎아 巖棲軒 마주 보이게 檀을 보아 매죽송국을 심어 節友社라」 불렀다.[38] 퇴계는 절의를 숭상했다. 매죽송국의 節에 마음 쏟아 節友로 삼았다. 그 중에도 梅竹을 더욱 사랑하였으며, 유독 梅兄을 酷愛했다. 옛날의 愛山者는 명산을 찾아 自托하였으나 그는 청량산에 살지 않고 도산에 살았다. 왜냐하면, 청량은 壁立하기에 늙고 병든 사람은 편안치 않으며, 樂山樂水가 缺一不可이니 洛川에 사는 것이 원이긴 했으나, 청량을 버리고 도산을 취하되, 산수를 겸해서 老病을 다스리고자 했다.

공자의 山水觀도 曾點과 같다는 감탄이 沂水上에서 나왔고, 주자도 卒歲의 願이 廬山마루에서 나왔다.[39] 시가 心學공부에 긴요하다면, 산수가 시를 짓게 하고 심성에도 알맞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퇴계는 산수를 마음에 끌어들여 養性하였다. 퇴계의 자연묘사는 풍경의 묘사가 아니라, 意境의 표현이요, 객관적 寫實이 아니라, 주관적 寫意였다.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정적 직관에서 意外義의 혼이 서려 있다고 하겠다.

특히 퇴계는 매죽을 사랑하되, 100여수의 매화시를 남겼다. 그 寒士的 고결성과 미감이 퇴계의 마음을 잡았다. 그러나 梅魂을 통해서 그 의경을 묘사했다. 자연의 眞樂이 梅兄으로 옮아 그 魄과 대화하며, 마

37) 筆者所藏本, 「도산십이곡」(前6曲)

38) 필자소장본, 「도산십이곡」(前6曲) 중 맨 첫째 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료 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료 하물며 泉石膏肓을 고쳐 무심하료.

39) 『퇴계전서』, 1, 권3, 「시 陶山雜詠 幷記」, 101쪽.
"其東爲豪泉泉上 山脚鑿令與軒對平 築之爲檀而植其上 梅竹松菊曰節友社"

음이 되게 했다. 淵明이 愛菊하고, 濂溪가 愛蓮하고, 逋仙이 愛梅하였다. 逋仙已去에 매화사랑 끊어졌다. 퇴계 出하여 매화사랑 兀然했다.

許蛟山이 퇴계의 고체시인 「湖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二首」와 「湖堂曉起用東坡定惠院月夜偶出韻」[40]을 들고 성리학자일 뿐 아니라, 시도 諸公을 압도한다고 극찬하였다.[41]

藐姑山人臘雪村	저 설한에 묘고인양 눈지는 마을,
鍊形化作寒梅魄	다듬어 지어냈네 한매 꽃송이.
風吹雪洗見本眞	찬바람 눈에 씻겨 본색 아련해,
玉色天然超世昏	타고난 하얀 얼굴 세속 넘어라.
高情不入衆芳騷	騷經이 뭇꽃에도 梅兄 없거니
千載一笑孤山園	천년 뒤 이 孤山에 활짝 웃어라
世人不識嘆類沈	葉公인 양 사람들이 모두 몰라도
今我獨得欣逢溫	溫伯雪子 만난 듯이 기뻐하누나
神淸骨凜物自悟	스스로 깨쳤네라, 조촐한 神骨
至道不假餐霞暾	붉은놀 머금었네 숫된 그 妙道
昨夜夢見縞衣仙	소복한 선녀 만나 간밤 꿈속에,
同跨白鳳飛天門	하늘을 치솟았네 흰봉을 타고
蟾宮要授玉杵藥	월궁들어 옥절구의 선약을 비니
織女前導姮娥言	직녀아씨 항아님께 말을 전하네.
覺來臭香滿懷袖	꿈을 깨자 그 향내가 소매 가득해,
月下攀條傾一罇	저 달 아래 가지 잡고 한잔 들어라.

퇴계가 44세(1544) 때, 東坡韻을 빌어 쓴 3수 中의 하나다. 동파풍의 詞麗美가 풍기긴 하나, 淸眞하고 高潔한 진상이 묘사되었다. 「風吹雪況見本眞 玉色天然超世昏」의 超色相과 「神淸骨凜物自悟 至道不假餐霞暾」의 神骨妙道를 타고 천상을 翱翔할 듯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 「昨夜夢見縞衣仙 同跨白鳳飛天門 蟾宮要授玉杵藥 織女前導姮娥言」이라고 표현하였으니 疎影南枝의 고상미가 구조적 寓喩性을 끌어 天上仙子로

40) 『퇴계전서』, 1, 권3, 「시」, 102~103쪽.
41) 『퇴계전서』, 1, 권1, 「시」, 56~57쪽.

승화되었다. 그 梅兄이 꿈길에까지 나타났다. 結聯에 이르러 「覺來臭香懷袖 月下攀條傾一罇」라고 부르짖었다. 꿈 깨자 晴香이 풍겨 오므로 달 아래 매화가지 잡고 한잔 술을 기울이는 멋이 서렸다. 속세를 뛰어넘는 玉色夢이 詩 중에 흘러 넘친다. 七絶名唱 속에도 청진한 매형의 모습이 자연에 조화되었다.

孤山梅隱[42](鄭子中求題屛畵八首)

返棹歸來鶴超人　　삿대 돌려 돌아오자 학도 따라와,
梅邊閒坐自淸眞　　매화 곁에 앉으니 천연 그대로
門前想亦非凡客　　그 문을 찾는 이도 속객 아닐레
底事逡巡尙隱身　　무슨 일로 우물쭈물 몸을 숨기나.

溪齊夜起對月詠梅[43]

群玉山頭第一仙　　군옥산 머리에 제일의 신선,
氷肌雪色夢娟娟　　빙설인 양 하얀 살갗 꿈속 고와라
起來月下相逢處　　달 아래 바장이다 매화 만나니,
完帶仙風一粲然　　완연한 신선풍골 방긋 웃어라.

「孤山梅隱」은 63세 때 지었고, 「對月詠梅」는 70세(終天하던 해) 때 작품이다. 返棹鶴還하고, 학이 梅邊에 閒坐하니 청진하기 그지없다. 氷肌雪色은 매화의 청진 고결성을 나타내며, 꿈 속에 娟娟한 신선은 매화의 화신이다. 월하상봉하니 完帶仙風이라 찬연한 一笑 속에 무한한 따사함이 돈다. 그 순간에 나와 매화 조화되어 물아일치의 경지다. 그러나, 매화의 청진고결은 작자의 모습이다. 퇴계는 매화 속에서 매혼으로 화하여 創新抒情을 아로새겼다. 그의 매화시는 그의 고결한 인격의 발로였다.

---

42) 許均撰, 『國朝詩刪』
43) 『퇴계전서』, 1, 권1, 「詩孤山梅隱」, 120쪽.

三. 哲理的 言外有意와 純靜性

시적 직유보다 시적 은유와 言外有意性이 그의 시에 생동하며 또한 온아한 순정성이 풍긴다.

어릴 때부터 自然林泉 속에서 자라 좋은 감회가 많았다. 퇴계가 18세(중종 13년, 1518) 때 지은 野塘詩는 주자의 觀書有感詩인 이른바 方塘詩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44]

露草夭夭繞水涯　　이슬풀이 이들이들 물가 둘렀고,
小塘淸活淨無沙　　작은 연못 맑고 조해 모래도 없고
雲飛鳥過元相管　　구름피고 멧새 날아 본디 그렇고,
只怕時時燕蹴波　　때때로 물 찰까 봐 제비 두렵고

시는 표현된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두둔하지도 말고 깎아보지도 말아야 한다. 부질없이 억지로 무엇을 은유하고 상징한 것처럼 과대하게 감상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 시적 언어와 심상을 읽어보면 언외유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느낀다. 어떤 哲理的 은유미가 언외에 흐른다.

起句는 外量이면서 자연의 理自體의 묘사요, 承句는 心體의 맑음을 비유하였으며, 轉句는 자연의 理法 그대로요, 結句는 외물의 물욕이 심체를 흔듦을 말했다고 본다.

「小塘의 淸活水」는 天賦의 본체요 심체다. 곧 물은 본체다. 그러나, 「只怕燕蹴波」라 하였으니 제비가 물결을 찰까 두렵다는 표현이다. 제비가 물결을 차면, 그 물이 어지럽게 된다. 물결은 곧 變體다. 물은 道心이요, 파도는 人心이라 비유한다면, 본체에 인욕이 간섭될까 두렵다는 뜻이겠다. 물이 靜的 本體 곧 理體요, 물결은 動的 變體 곧 氣體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기철학의 원리와 인심도심의 眞像의 원리가 이 시 속에 晴喩된 고차적 서정시라 하겠다. 그러나, 화엄철학에서는 물이 파도요 파도가 물이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물은 본체요 파도는 현상이

44) 『퇴계전서』, 1, 권5, 「시」, 161쪽.

라 했다. 실체 즉 본체는 眞如요, 현상은 生滅이라 했다. 마음엔 眞如門과 生滅門이 있다고 했다. 물 위에 지는 파도도 물이다. 그러므로, 비유한다면, 理와 事(氣)의 관계다. 곧 물과 파도는 不二라 했다. 그래서 理事無礙法界觀을 세웠다. 그러므로 人心道心이 둘이 될 수 없고, 도심 속에 인심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율곡철학도 이 화엄사상과 통한다.

퇴계가 理學을 대성한 만년에 와서 약관에 표현한 시적 哲理로 치달았다.

68세 때 지은 守靜에서 「守身엔 꺾이지 않음을 귀히 여기고, 養心엔 펴나지 않은 상태를 좇나니, 진실로 靜으로 爲本하지 않으면 動하나 車에 멍에 매는 나무가 없는 것 같다」[45]고 하였으니 정을 근본으로 삼되, 靜이 動을 제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宋의 范蘭溪는 「百憂가 번거로우나 至靜者는 泰然自若이라」했다. 퇴계는 이런 이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自若二字만으로는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止水는 마음과 같이 精을 본체로 삼고 있으나, 動時엔 파도가 흉흉하므로 靜을 꺾기 어렵다. 꺾어 내버려둘 때는 靜하지 않지만 靜이 아니고는 할 수도 없고, 물결이 그치면, 원모습대로 깊이 靜에 잠긴다. 본체는 작용에 따라 없어지니 精이 없는 것 같으나, 본성은 끝내 없어지지 않고 근본은 그대로 있다. 靜은 다만 自若한다고만 말한다면, 蘭溪는 너무 깊게만 말한 것이 아닐까」[46]라고 읊었다. 精을 體로 삼고 물결을 百慮에 비유했다. 動靜互用에서 말한다면, 動은 靜에서 힘입는 것이 많지만 靜은 動에서 힘입은 것이 적다. 動時의 힘은 靜時에 지어지는 것이니 靜시에 이미 動할 원리로 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체의 마음에 오염되기 쉬운 것은 욕심이다. 그러므로 靜時工夫를 통해서 인간이 슬기롭게 될 것이

45) 『퇴계전서』, 4, 권1, 「實記」, 「金誠一撰詩」, 13쪽.
『퇴계전서』, 4, 권1, 『言行錄』, 「類編」, 「學問」, 169쪽
『퇴계전서』, 4, 권1, 『言行錄』, 「類編」, 「學問」, 239쪽.
『星湖塞說』, 卷10, 「下論文門」, 「朱子退溪詩」.

46) 퇴계전서 (1) 卷五詩(p.146)

다.「萬理는 頓悟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실체에 타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47)

순정한 정적 세계를 본체로 하여 동적 세계로 제어하려는 溫敦的 성정이 詩 속에 靈動하고 있다.

2. 外形的 定型律

퇴계의 漢詩는 近體絶律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형시란 音報律·音聲律을 갖춘 시형식을 말한다. 퇴계의 한시는 그 운율을 다 갖춘 완전 정형시로서 그 구실을 다하였다. 우리의 시조 등 가요는 언어 조직상 불완전 정형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도산십이곡도 불완전 정형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체시는 철저한 前述 율격을 갖추어야 했다. 그 絶·律의 장르를 통해서 詩作에 힘썼으므로 완전 정형시의 명수였다.

Ⅲ. 退溪書의 端重 濃墨性

우리의 書風이 신라는 率更體(歐陽詢), 魯公體와 六朝體가 유행되었다. 근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無垢淨光 大陁羅尼經」의 印本이 발견되어 세계 最古의 현존 인본으로 등장하였는데, 그 서풍이 字經體로 率更體를 기본으로 하고, 魯公의 풍을 겸한 글씨이며, 해인사 吉祥塔記도 率更體이다. 그러나 皇福寺 塔誌는 六朝風을 띠었다. 이렇게 신라 인본엔 率更·魯公·六朝體가 유행되었으나, 서예계에선 右軍體를 받아 대성한 海東書聖 金生 등이 나타났고, 고려에 들어와선 전기엔 率更體가 그 주류를 이루고, 후기엔 王右軍體를 받아 이룩된 默庵體(坦然體)가 유행되었으니 소위 率默兩體가 양대 분수령을 이루더니 麗末엔 松雪體가 전래되어 麗朝 인본의 신천지를 개척하였으며, 저 유명한 팔만대

47)『퇴계전서』, 1, 권5,「시」, 162쪽.

장경체는 率更體를 받아 미화된 소위 대장경체였다.

그러나 조선조 초기의 刊本은 송설체가 지배적이었다. 牧隱의 詩稿나,[48] 安惠書인 彌陀經과 국보 大藏經中補遺藏經의 禮念彌陀 道場懺法 등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활자에 있어서도 송설체였다. 安平大君·鄭蘭宗과 같은 송설체 대가들의 글씨로 이룩된 것을 보아서도 당시의 숭상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국초 전성기를 지나자 송설체의 輕妍美에 염증을 느껴 왕우군체로 기울어져 소위 晉·蜀 合流式의 서풍이 유행하였으니 그 대표적 대가는 명필 韓石峯이었다. 그래서 刊本도 선조를 전후해서는 白沙集·芝峰類說 등 많은 간본이 모두 석봉풍의 필치로 되어 있어 그것이 단연 제1위를 차지하였다. 이것이 차츰차츰 간본체를 형성하여 조선조 刊本字樣의 한 형태를 이루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조는 진·촉체가 주류를 이룩하였으나, 조선말에 이르러서는 각체를 종합하여 소위 秋史體를 창조해 낸 金阮堂 같은 대명필이 났지만, 조선 중기엔 역시 王趙筆이 환영을 받아 한석봉 같은 대가를 내쳤으니, 퇴계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퇴계의 서체는 晉의 書聖 왕우군체를 익혀 그의 건실 온돈한 군자적 인격이 용해되어 소위 퇴계체로 응결된 필치다. 도산십이곡은 퇴계 만년 65세 때 쓴 것이며, 퇴계체로 굳어진 뒤의 서풍일 뿐 아니라, 국한문 혼용체로 특이한 薰香이 흘러 넘친다.[49]

端勁 溫和 整齊 군자적 精이 응축된 필치가 도학자다운 서풍이라 할 수 있으며, 소위 퇴계체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도학자로서 단아 건실 정제된 濃墨美는 감상할 만하다.[50] 퇴계 이후 안동지방의 글씨체가 퇴계체에서 탈피치 못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맴돌면서 창의성 있는 다른 서체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詩章書道의 묘는 도학자인 퇴계에게 있어서는 특히 餘事에 지

48) 『퇴계전서』, 1, 권5, 「시」, 162쪽.
49) 拙著, 『고려조한문학연구』, 327쪽.
50) 拙稿, 「퇴계문학의 연구」, 『퇴계학연구』 1집(1973. 12. 1), 161~162.

나지 않지마는 그는 因文入道한 학자인 만큼 이 방면에 宿工이 있어 일찍부터 能聲을 博하고 能筆로도 학자군의 표준이 되었다.

그의 학우요 호남의 巨儒인 金河西가 퇴계에게 보낸 시 가운데 「李杜文章王趙筆」[51]이라고 퇴계의 문필을 激賞하였으니 그는 도학자로서 명성이 높을 뿐 아니라, 문장은 이태백과 두보요, 필법은 왕희지와 조맹부라고 한 말이겠다. 하서의 말을 통해 보나 도산십이곡 등 간본필법이나 與長子受之書[52]나 도산잡영 등 기타 많은 친필을 보건대, 퇴계는 문인 서도가로서도 일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필법의 方正端勁함과 같이 詩章에 있어서도 一字一句도 選鍊精思의 苦를 겪어 이룩되지 아니함이 없었다.[53]

그의 필법이 端勁雅重하고 큰 글자도 方嚴整齊되어 기괴를 숭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默書字體도 정돈되지 아니함이 없고 방정단중하였다.[54] 이런 詩章 字畵의 묘는 퇴계의 성품에서 번져졌다. 곧 性度가 온순하고 粹然히 옥과 같으며,[55] 語默動靜이 愼詳閑泰한[56] 성격의 반영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그 心法 心學에서 鍊出되었기에 보통 疏放한 문인서예가와는 자연 그 類를 달리하게 된다.

경복궁이 화재를 입어 重新될 때, 그 殿額門題를 썼고 상량문도 짓고 썼다고 한다.[57] 七先生遺像贊은 朱濂溪·程明道·程伊川·邵康節·張橫渠 司馬涑水·朱晦庵 등 七賢의 畵像贊을 모은 것으로 주자가 짓고

---

51) 『靑莊館全書』, 卷58, 「寒竹堂涉筆上」, 「松溪撰」
"嘗言于退溪曰 先生六止澹薄風月 濃墨草書 則先生之道德益高 風月者 東俗所謂詩也"

52) 『退溪全書』, 3, 『年譜』, 卷1, 577쪽.
『退溪全書』, 4, 『年譜』 上, 「柳成龍撰」, 114쪽.
「先生未幾環鄕 河西以詩贈別有云 夫子嶺之秀 李杜文章王趙筆」 때는 퇴계 23세(중종 17년, 1522)

53) 十幅屛風親筆로 되어 전한다(현재 경대박물관소장본).

54) 『퇴계전서』, 4, 『언행록』, 권5, 「類編」, 103쪽.

55) 『퇴계전서』, 4, 『언행록』, 권5, 「雜記」, 237쪽.

56) 『퇴계전서』, 4, 『언행록』, 권1, 「遺事」, 栗谷李珥撰, 21쪽.

57) 『퇴계전서』, 4, 『언행록』, 권1, 「언행총록」, 月川趙穆撰, 8쪽.

퇴계가 썼다. 퇴계 沒후에 崔興源이 刻石하여 탁본으로 하였다. 그 탁본이 일본의 內閣文庫에도 一本을 藏하고 있는데, 此書來由에 보면, 「퇴계의 서법은 특히 다만 도덕 중의 一藝일 뿐이다. 세상에서 선생의 도덕을 경모하면서 片言隻句라도 寶藏하여 廣傳코자 하였다.」[58] 그의 서법을 도덕 중의 한 藝로 보았다. 퇴계는 習書에 대한 主見이 뚜렷했다. 서도는 심법에서 이룩되니 要名書가 아니다. 蒼羲가 신묘한 글자를 만들어 魏晋에 이르러 멋진 서체가 大備되었다. 이것을 흉내내다가 虛를 이룰까 두렵다. 묵화를 存一케 하며 毁譽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59]고 주장하였다.

퇴계 당시엔 趙·張의 書法이 유행되었던 모양이나 趙·張書는 후학을 그르치게 하는 서법이라 생각하고 이를 배격하고는 서성 왕우군을 익혀 端重한 도학자적 서도의 일각을 이루어 소위 퇴계체로 굳어졌다. 도산십이곡의 필치도 端正愼詳한 퇴계의 인격이 생동하고 있는 端勁한 서법이다. 퇴계는 도학군자이면서 심법으로 익힌 퇴계체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퇴계의 제자인 송계 권응인은 晩唐을 배워 시풍 전환을 齎來하였으며 시평도 남겼는데, 그는 일찍이 퇴계에게 「납작글씨 다닥風月」이라 평하였다. 오늘토록 안동지방에 퇴계체의 테두리 안에 맴돌고 있는 것은 그의 영향이 지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퇴계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심법에서 새로운 서체 창조가 아쉽다. 그러나 퇴계의 隸書는 오늘날 전하는 것이 별로 없고, 해·행서가 위주였고 초서도 많았다.

퇴계는 소시부터 楷正을 위주로 하되, 科文은 抄하였으나, 雜書는 별로 쓰지 않았으니 사람들의 亂書를 싫어했던 모양이며, 磨墨도 방정하

58) 『퇴계전서』, 4, 『언행록』, 권5, 「類編」, 103쪽.

59) 退溪先生之於書法 特其道德中一藝耳, 然而世之知景慕先生之道德者 無所不至 則數片言雙言, 英不寶藏而欲廣傳焉, 使相崔公, 再按海西之節, 棠陰餘刃得先生所寫晦庵朱子撰七先生遺像費於先生之遺子參奉喬, 命工入石, 以與同志者共之, 相公諱興原朔寧人也, 萬曆甲申(1584)八月 晦日 都事靑松沈 岱志(七先遺像撰序)
崔興源(1529~1603)號는 松泉, 崔恒의 曾孫, 官은 領相, 淸白吏, 諡는 忠貞.

게 갈았기에 먹이 삐뚤어지게 갈리지 않았다고 한다.[60] 心正이면 筆正이란 말처럼 심정이면 墨正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서법도 단중할 뿐 아니라, 磨墨도 必正이니 모든 것을 바르게 理 따라 사는 군자풍이 歷然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屛簇을 요청해도 굳이 辭하지는 않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쓰지 않았으며, 쓰는 중도에 사람이 찾아오면, 문지기가 반드시 소장했다가 전해 주었다[61]고 한다.

그런데, 퇴계의 학우인 김하서가 퇴계를 「李杜文章王趙筆」이라 하였으나, 오히려 「陶杜文章 右軍筆」이라 代稱하는 것이 좋으리라. 퇴계는 陶詩는 사랑하되, 이백시는 익히지 않았고, 왕우군필을 모범으로 삼아도 조송설체를 배척하였으니 「李杜文章王趙筆」이라 할 수 있으랴. 조송설은 節을 굽혀 事之하였으니 失義인간상이다. 그러므로 書 이전에 松竹義理에 산 인간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조송설체를 싫어하였으리라 생각되며, 왕우군은 서성으로서 入神했으므로 그 晋體를 모범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하여튼 퇴계는 심법으로써 진체를 據得하여 端重 濃墨한 퇴계체를 이룩하여 중외에 널리 알려졌다.

Ⅳ. 結　言

퇴계는 인문입도한 東國儒宗으로서 시인인 동시에 서도에도 일가를 이룬 동방대현이다.

퇴계는 속유처럼 經文一致 문예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문학의 중요성

60) 『퇴계전서』, 1, 권3, 「시 和子中間居二十韻 習書」, 108쪽.
字法從來心法餘 習書非是要名書
蒼羲制作自神妙 魏晉風流寧放疎
學步吳興夏失故 效顰東海恐成處
但令點畫皆存一 不係人間浪毁譽

61) 『퇴계전서』, 4, 『언행록』, 권5, 「類編」, 103쪽.

을 강조하였다. 그는 「시는 사람이요, 사람은 시다」라는 詩觀을 갖고, 확연한 이기철학관을 바탕으로 사물을 精觀하는 도학군자이기에 褻慢戱狎과 淫哇를 배격하고 溫敎한 詩數로서 시를 지었다. 「詩不誤人人自誤」라고 부르짖으며, 시 자체의 순수무구성을 주장하였다.

그의 시는 고매한 인격에서 번져 나온 것처럼 華彩를 멀리하고 고담·순정·경건한 시를 지었다. 은유적 역사적 주체의식에서 希夷子의 高士性에 正論을 세웠으며, 자연진락에의 동경과 순정성을 찾아 자연의 주관적 청랑성에서 생을 찾았다. 언외유의의 哲理적 動精互用에서 본체를 찾아 마음의 욕심을 靜에서 제어코자 하였다. 그의 시는 近體絶律이 주맥을 이루었다. 퇴계는 매화의 고결성을 사랑함으로써 100여수의 매화시를 지었다. 매혼으로 화하여 매화를 그렸다. 寒士的 梅兄美와 대화함으로써 退心과 梅心이 상통하였다. 그는 형이상학적 철학을 논하면서 형이하학적 훈고 고증학을 중시했다. 一絶 一句 一字라도 選鍊精思의 苦를 가하여 시를 이룩했다. 필법 또한 단경 단중함으로써 소위 퇴계체를 이루었다. 하서가 「李杜文章王趙筆」이라 하였으나, 오히려 「陶杜文章王右軍」이라 대칭하고 싶다.